

노화와 작업능력을 산업보건의 중심 이슈로 고민하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강 동 목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 출산율이 1.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이에 비해 평균수명은 길어져 여성 82.5세, 남성 75.9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UN이 제시한 기준으로 1999년도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20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다.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경우, 젊은이 3명이 고령인구 1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고령화의 문제는 생산현장에서도 나타나는데,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지난 5년 사이에 제조업체의 생산직 근로자 평균 연령이 35.5세에서 37.5세로 2세가 높아져 급격한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년이 2009년 기준으로 평균 57세인데 반해 유럽 국가들의 정년은 65세가 대세이지만 최근 들어 정년 연장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독일, 덴마크 및 영국에 이어 최근 스페인 정부가 65세 정년을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독일은 2012-2019년 공공 연금 대상자인 사람들의 은퇴 연령을 67세로 올리기로 결정했고, 영국도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2024-2026년 68세로 맞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보다 경제적 발전

정도가 떨어지는 헝가리도 올해 정년을 종전 57세에서 62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처럼 정년 상향 조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유는 기대 수명 연장, 출생률 감소, 연금 재정 감소 등으로 정부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의 문제는 비단 연금 등 재정문제와 노인복지 등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도 관련된 사회의 핵심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생산현장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충분히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근로자가 생산 현장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개인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큰 손실이 된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산업보건 영역에서 고령화문제를 핵심의제로 다룬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근로자들의 고령화문제의 핵심은 생산능력의 유지·증진이다. 핀란드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 작업능력지수(work ability index: WAI)를 개발하여 이를 유지·증진하는 노력을 산업보건의 중심으로 설정, 전사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작업능력의 측정과 증진노력이 산업보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영역이 된 것은 오래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보건 영역에서는 고령화 문제와 작업능력증진의 문제가 별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대책과 더불어 고령사회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은 고령화에 대해 고용과 건강에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다만, 제 11조의 고용에 관한 내용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보건'의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적용에선 작업능력의 평가와 개선의 문제 보다는 고용과 근로환경 등의 일반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층의 근로 의욕과 관련하여 2009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의 절반 이상이(57.6%) 향후 취업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국가 차원에서 고령화 대책

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고 고령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과제의 중심에 작업능력과 산업보전이 빠져있는 데에는 산업보건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작업능력과 관련하여 핀란드에서 개발한 WAI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측정도구이다. 이 도구의 적용과 관련하여 2009년 산업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양동주(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본부장)의 연구에서 WAI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필자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국의 근로자들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 45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들에서 체력의 급격한 저하를 보이는데, 이러한 체력의 급격한 저하는 꾸준한 운동을 한 근로자군에서는 관찰되고 있지 않아, 운동 등 건강증진이 고령근로자의 작업능력 향상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연구 결과, 체력증진과 인지기능증진을 통해 WAI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증진과 인지기능증진 노력을 통해 작업능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추세는 많은 기업들이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을 추진하고 있어 중·고령자들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은퇴자로 분류되어 사회 뒤편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사회의 노령 부담을 악화시켜 전반적인 문제를 일으킴과 동시에 건강한 노동력의 방치라는 점에서 국가경쟁력의 악화로 이어진다.

근로자의 고령화문제는 이러한 점에서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문제이며, 산업보건에 있어서도 핵심과제로, 이 과제를 중점적으로 사고할 경우 산업보건의 국가 전체의 위상 제고로도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중심에 고령화, 고령근로자와 작업능력이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란다. ☺